『신앙과 학문』 31(3). 175-200
https://doi.org/10.30806/fs.31.3.202609.175

회계 투명성의 신학적 기초: *Coram Deo*를 중심으로*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A *Coram Deo* Perspective

장 근 배 (Jang, Geun Bae)**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heological and ontological foundatio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ram Deo*, complementing the institutional and economic approaches prevalent i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Traditional accounting literature explains accounting transparency primarily through information asymmetry, agency problems, corporate governance, external auditing, and internal controls. While these approach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capital market efficiency and investor protection, they provide a limited explanation of the normative and ontological question of why individuals responsible for accounting information should ultimately act with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is study reinterprets *Coram Deo, Coram Meo,* and *Coram Mundo* as complementary dimensions of accountability. *Coram Deo* represents ultimate ontological accountability before God, *Coram Meo* represents internal accountability grounded in conscience and professional ethics, and *Coram Mundo* represents social and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to stakeholders and the broader community. While recognizing the theological priority of *Coram Deo*, the study conceptualizes these dimensions as a complementary structure of ultimate foundation–internalization–institutionalization. Given human sinfulness and moral fallibility,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internal controls, external audi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do not compete with *Coram Deo* but serve as essential means of supporting and implementing accountability within human organizations.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Wirecard, Luckin Coffee, and Osstem Implant cases and interprets

* 2026년 8월 4일 접수, 9월 1일 최종수정, 9월 2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영경제학부 부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geunbae.jang@handong.edu

their ethical and institutional failures normatively through the lens of *Coram Deo*. It does not claim an empiri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fraud and the absence of *Coram Deo*; rather, it proposes a the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ccounting fraud in terms of integrity and ultimate accountability. Accordingly, *Coram Deo* does not replace institutional controls but provides the ultimate normative foundation that gives direction and meaning to professional integrity, internal controls, audi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This framework contributes to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accounting accountability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accounting ethics education and organizational accountability.

Key words: accounting transparency,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 accountability, accounting ethics

I. 서론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은 현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며, 투자자 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Bushman & Smith, 2003 ; Healy & Palepu, 2001).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며,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계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경제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Bushman과 Smith(2003)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핵심 요소이며,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회계정보는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기업의 실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따라서 회계투명성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ESBA](2024)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부정(자산유용, 부패와 회계부정 포함)으로 인해 상실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회계부정을 포함한 부정의 문제는 국가와 산업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독일의 Wirecard는 2020년 약 19억 유로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럽 역사상 가장 큰 회계스캔들 중 하나를 일으켰다(KPMG, 2020). 같은 해 중국의 Luckin Coffee는 허위 매출 계상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으며(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2020), 국내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금융감독원, 2022).과 여러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외부감사제도,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같은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김정재(2015)는 재무보고의 품질을 회계담당자의 능력과 정직성의 함수로 설명하면서, 제도보다 회계담당자의 윤리성이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회계담당자의 능력과 정직성은 모두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직성 부족이 오히려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transparency)을 해치는 것으로 진단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Wirecard나 Luckin Coffee 등의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단순히 회계기준이나 감사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

재와 윤리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회계기준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까지 제거할 수는 없으며, 감사는 재무정보를 검증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동기까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회계부정의 문제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와 운영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탐욕(greed), 교만(pride), 자기기만(self-deception), 그리고 책임성의 문제와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라고 선언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성경적 인간 이해는 회계부정을 제도적 실패의 차원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 자기기만 및 책임성의 문제라는 윤리적·신학적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은 회계투명성을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등 제도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Akerlof, 1970; Jensen & Meckling, 1976; Bushman & Smith, 2001). 이러한 연구들은 회계투명성의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actor) 또는 계약관계 속의 경제주체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계인의 윤리적 동기와 궁극적 책임성(ultimate accountability)의 존재론적 기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설명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현대 회계학은 회계부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풍부한 논의를 제공하지만, 회계인은 왜 궁극적으로 정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research gap)을 *Coram Deo*의 관점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인간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 종교개혁 전통의 핵심 개념인 *Coram Deo*이다. *Coram Deo*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before the face of God 또는 in the presence of God)를 의미하며,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 개념은 특정한 종교적 경건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존재론적 원리(ontological principle)이다.

*Coram Deo*의 사상은 성경 전체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고 명령하셨으며, 시편 기자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한다(시 139:1-12). 또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골 3:23-24)고 권면함으로써 모든 직업과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수행되는 소명(vocation)임을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체계화하여 인간은 하나님

의 절대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며,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고 설명하였다(Calvin, 김종흡 외 공역, 2006).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청지기이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후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주장하였다(Kuyper, 박태현 역, 2020). 바빙크 역시 모든 학문과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이러한 논의는 *Coram Deo*가 개인의 경건을 넘어 학문과 직업윤리 전반을 포괄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원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Coram Deo*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현대 기업지배구조가 강조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은 주주와 투자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책임(horizontal accountability)에 초점을 둔다. 반면 *Coram Deo*는 인간의 모든 책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라는 수직적 책임(vertical accountability)에 기초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계인의 정직성은 외부의 감시나 처벌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존재론적 책임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감시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왜 정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종교개혁 전통의 *Coram Deo*와 함께 *Coram Meo*와 *Coram Mundo*의 개념도 강조된다. *Coram Meo*는 인간이 자신의 양심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하며, *Coram Mundo*는 공동체와 사회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의미한다(Mahafaly, 2016). *Coram Deo*가 깔뱅의 개념인 반면, *Coram Mundo*는 마틴 루터가 "두 가지의 의(Two Kinds of Righteousness)"에서 사용한 개념이다(Mahafaly, 2016). *Coram Meo*(coram meipso)는 Ebeling(1970)에서 마틴 루터의 관계론적 인간 해석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인간의 양심은 죄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통제 역시 완전하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계부정은 양심의 마비와 사회적 책임의 약화 속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Coram Meo*와 *Coram Mundo*는 회계윤리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궁극적인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Coram Deo*가 인간 존재의 궁극적 책임성을 제공함으로써 *Coram Meo*를 정화하고 *Coram Mundo*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로 기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회계투명성이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의 죄성은 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인간은 선한 의지와 양심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죄와 자기기만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한의 분산, 상호 견제, 내부통제, 외부감사 및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인간의 죄성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고 책임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Coram Deo*는 이러한 제도적 접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규범적 토대를 제공한다.

*Coram Deo*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개인의 신앙과 영성의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들은 존재하지만(Lee, 2015 ; 이상웅, 2015 ; 이종숙, 2019 ; 박형용, 2021), *Coram Deo*를 기업 활동이나 회계투명성의 이론적 기초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ram Deo*를 회계투명성의 존재론적 토대로 재해석하고, *Coram Meo*와 *Coram Mundo*를 통합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헌을 한다. 첫째, 회계투명성을 정보비대칭이나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제도적 접근을 넘어 존재론적·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둘째,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를 통합한 책임성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회계윤리의 이론적 기반을 확장한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의 궁극적 기초는 무엇인가, *Coram Deo*는 현대 회계학이 설명하지 못한 책임성의 존재론적 기초를 어떻게 제공하는가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의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현대 회계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개념을 검토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의 사례와 이를 *Coram Deo*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독교 회계교육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의 신학적 이해

1. *Coram Deo:* 존재론적 책임성의 기초

*Coram Deo*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before the face of God 또는 in the presence of God)를 의미한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개념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였다. *Coram Deo*는 단순히 종교적 경건이나 예배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존재론적 선언이다(Calvin, 김종흡 외 공역, 2006 ; Lee, 2015).

깔뱅은 “기독교강요” 첫머리에서 참된 인간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며, 자신의 모든 삶과 행위에 대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Coram Deo*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궁극적 책임성(ultimate accountability)을 규정하는 존재론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 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하나님을 피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으며(창 3:8-10),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라고 고백하였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고후 5:10)라고 말하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서 4장 13절(English Standard Version:ESV)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앞에 만물이 드러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헬라어로 logos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logos와 현대 영어의 accounting이 직접적인 언어적·어원적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 영어의 accounting은 중세 영어와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라틴어 computare(계산하다, reckon) 계열에서 발전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히브리서 4장 13절의 'give account'를 현대 회계의 직접적인 성경적 어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진 행위에 대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회계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연결되는 '신학적 유비(theological analogy)'로 이해한다(Roberts & Scapens, 1985). 이러한 신학적 유비의 핵심은 '계산' 자체보다 '책임 있는 보고(account-giving)'에 있다. 즉 히브리서의 관심은 재무적 기록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과 행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궁극적 책임성의 구조는 맡겨진 자원의 사용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회계의 책임성 개념을 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유비적 틀을 제공한다.

카이퍼는 정치·경제·문화·학문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Kuyper, 박태현 역, 2020), 바빙크는 모든 직업과 학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적 소명(vocation)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Coram Deo*는 회계를 포함한 모든 전문직 윤리의 존재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Coram Meo*: 양심에 기초한 윤리적 책임성

*Coram Meo*는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 앞에서"(before myself)를 의미하며, 인간이 자신의 양심(conscience)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을 강조한다. 이는 Ebeling(1970)에서 마틴 루터의 관계론적

인간 해석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기독교 윤리학은 전통적으로 양심을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15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양심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Coram Meo*는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렘 17:9).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Sen, 1977), 양심 자체도 더 높은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정될 필요가 있다.

3. *Coram Mundo:*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성

*Coram Mundo*는 "세상 앞에서"(before the world)를 의미하며, 인간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Coram Mundo*는 마틴 루터가 " 두 가지의 의(Two Kinds of Righteousness)"에서 언급한 내용이다(Mahafaly, 2016).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Mahafaly, 2016). 이러한 관점은 현대 기업윤리, CSR, ES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도 연결된다(Freeman, 1984 ; Porter & Kramer, 2011).

4. *Coram Deo*의 신학적 우선성과 책임성의 상호보완적 구조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는 서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책임성 구조를 구성하는 상호보완적 개념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Coram Deo*가 존재한다.

*Coram Meo*는 개인의 양심을 제공하지만 죄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며, *Coram Mundo*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외부 감시에 의존한다. 반면 *Coram Deo*는 인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양심을 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기준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와 생각까지 아시며(시 139:1-4 ; 히 4:13),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의식은 외부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직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Coram Deo*의 신학적 우선성이 *Coram Meo*와 *Coram Mundo*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제 회계투명성의 구현 과정에서 세 차원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Coram Deo*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를 규정하는 존재론적·규범적 기초라면, *Coram Meo*는 이러한 책임성이 개인의 양심, 인격, 전문직 윤리 및 전문가적 판단으로 내면화되는 차원이다. *Coram Mundo*는 이러한 책임성이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내부통제, 외부감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상호 견제와 같은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는 차원이다.

따라서 세 차원의 관계는 단순한 일방향적 위계라기보다 '궁극적 토대-내면화-제도화'의 상호보완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Coram Deo*는 *Coram Meo*와 *Coram Mundo*에 규범적 방향을 제공하고, *Coram Meo*는 그 책임성을 개인의 윤리적 실천으로 구현하며, *Coram Mundo*는 개인의 윤리적 한계를 조직과 제도를 통하여 보완한다. 동시에 건전한 제도와 공동체는 개인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교정함으로써 *Coram Meo*의 실천을 지원한다.

III. 회계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이론적 고찰

1. 회계투명성의 개념과 본질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으며, 적시에 제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2018)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투명성은 단순한 정보공개의 수준을 넘어 경제적 실체를 충실하게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하고, 정보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적시성(timeliness),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IASB, 2018).

Bushman과 Smith(2001)는 회계투명성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투명한 회계정보는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고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며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Healy와 Palepu(2001) 역시 투명한 공시(disclosure)가 자본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회계투명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회계기준과 공시규정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윤리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관한 문제로 확장된다(Moore et al., 2006).

2. 회계의 본질과 책임성(Accountability)

회계는 본질적으로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다. Accountability는 "설명하다", "보고하다", "계산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accomptare에서 유래하였으며, 역사적으로 회계(Accounting)와

동일한 개념적 뿌리를 가진다(Roberts & Scapens, 1985). 회계의 본질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recording)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위임된 자원의 관리 결과를 타인에게 설명(account giving)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회계는 국가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통치자에게 자원의 사용 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중세에는 청지기(steward)가 영주에게 재산의 관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회계가 발전하였다(Axtell, Smith, & Tervo, 2017). 현대 기업에서도 경영자는 주주에게, 회계인은 투자자에게,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명책임을 수행한다(IESBA 2024). 결국 회계는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며, 회계투명성은 그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역시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해한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마 25:14-30)와 바울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는 말씀은 인간이 맡겨진 자원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지기적 책임성은 회계의 본질과 깊은 공통점을 가진다.

여기서 현대 회계의 account-giving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account-giving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전자는 경제적 자원과 그 관리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제도적·전문적 행위인 반면, 후자는 인간이 자신의 삶과 행위 전체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신학적 개념이다. 그러나 두 개념 모두 '맡겨진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보고한다'는 구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비적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비는 회계의 책임성을 단순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넘어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라는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3.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회계투명성

현대 회계학에서 회계투명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이다. Jensen과 Meckling(1976)에 의하면 기업은 주주(principal)와 경영자(agent) 사이의 계약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이지만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경영자는 기업 운영을 담당하지만 기업의 소유자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한다(Akerlof, 1970). 경영자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할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주주는 외부감사, 내부통제, 공시제도 등을 통해 경영자를 감시하려고 한다(Healy & Palepu, 2001).

회계투명성은 이러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해된다(Bushman & Smith, 2001). 그러나 대리인 이론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한다(Jensen & Meckling, 1976). 따라서 책임성의 기초를 신뢰보다는 감시에 두게 된다. 결과적으로 회계투명성은 "정직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은 현실의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이 왜 정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이유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4.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과 회계투명성

대리인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이다(Davis et al, 1997). 청지기 이론은 경영자가 반드시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존재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조직의 성공과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 이론은 신뢰, 책임감, 봉사정신, 조직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

조직이론으로서의 청지기 이론은 성경적 청지기직(biblical stewardship)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Davis et al.(1997)의 청지기 이론은 대리인 이론의 자기이익적·기회주의적 인간관을 보완하면서,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조직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조직행동적·심리학적 관점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 청지기(steward)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직과 주주 또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향한다. 이에 비해 성경적 청지기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창조주-피조물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원과 역할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며 관리한다는 신학적 개념이다.

그럼에도 조직이론의 청지기 이론과 성경적 청지기직 사이에는 비교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두 관점 모두 인간을 단순히 자기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지 않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자원과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개념은 책임성, 신뢰, 충실성 및 자기이익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공통된 윤리적 지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이 두 개념의 이론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적 청지기직은 조직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조직행동 이론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신학적 개념이다. 성경에서 인간은 창조세계의 궁극적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존재로 이해된다(창 1:28; 시 24:1). 따라서 성경적 청지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조직이나 주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조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은 이러한 궁극적 책임성으로부터 파생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는 말씀은 청지기의 핵심적 덕목이 단순한 조직성과가 아니라 맡긴 자에 대한 충성(faithfulness)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이론의 청지기 이론은 대리인 이론과 달리 신뢰, 조직에 대한 헌신, 공동목표 및 친조직적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경영자의 행동을 보다 폭넓게 설명한다(Davis et al., 1997). 그러나 이 이론의 목적은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궁극적·존재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또는 “왜 청지기는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충실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은 조직이론의 설명 범위를 넘어선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적 청지기직과 *Coram Deo*가 조직이론의 청지기 개념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5. 현대 회계학 책임성 이론의 한계

현대 회계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계투명성을 설명해 왔다. 대리인 이론은 감시와 계약을,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제도적 통제를, 이해관계자 이론은 사회적 책임을, 청지기 이론은 신뢰와 헌신을 강조한다(Jensen & Meckling, 1976 ; Freeman, 1984 ; Davis et al., 1997).

이들 이론은 회계투명성의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책임성의 궁극적 근거를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책임성은 대부분 *Coram Mundo,* 즉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 회계부정 사례들은 외부감시와 내부통제,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Moore et al., 2006). 이는 제도적 통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통제만으로 회계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인간의 죄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제도와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인간은 자기이익과 자기기만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며, 오류와 부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통제, 외부감사, 감사위원회 및 기업지배구조는 인간의 죄성을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책임성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ram Deo*를 기존의 제도적 책임성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Coram Deo*는 제도적 책임성이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며, 제도는 죄성을 가진 인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IV. *Coram Deo*와 회계투명성의 존재론적 기초

1. 회계투명성과 인간 존재의 문제

현대 회계학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제도, 감사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Bushman & Smith, 2001 ; Healy & Palepu, 2001 ; Jensen & Meckling, 1976). 이러한 장치들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례들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회계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Moore et al., 2006). 그 이유는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은 정보 작성의 방법을 규정할 수 있고, 감사는 재무정보를 검증할 수 있으며, 법률은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규정은 인간의 욕망, 자기합리화,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동기와 존재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적 통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자기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권력과 권한의 집중을 제한하고 상호 견제와 책임성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내부통제, 외부감사,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공시제도는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을 전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설계된 책임성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Coram Deo*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이 불완전한 인간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 구조이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죄(sin)의 문제로 설명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한 사건이었다(창 3:1-7). 깔뱅 역시 인간의 타락 이후 이성과 의지가 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고 설명한다(Calvin, 김종흡 외 공역, 2006).

이러한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회계부정을 바라볼 경우, 회계부정은 숫자의 오류나 기준 적용의 실패라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객관적 진실보다 자기이익을 우선하려는 인간의 왜곡된 방향성과 책임성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의 근본 질문은 “어떤 제도를 더 만들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인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2. *Coram Meo*의 가능성과 한계

회계윤리의 첫 번째 차원은 개인의 양심이다. 회계인은 자신의 양심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내적 책임성은 *Coram Meo*의 핵심이다. 실제로 회계실무는 모든 상황을 세부 규정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전제로 한다(IASB, 2018). 회계인은 수많은 판단 상황에서 법적 규정뿐 아니라 양심과 전문직 윤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양심은 회계투명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Coram Meo*는 충분한 기초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의 양심과 마음이 죄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한다. 잠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고 선언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회계부정도 대개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로 시작되지 않는다. "회사를 위한 일이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다음 분기에 회복되면 문제없다", "모든 경쟁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와 같은 자기합리화가 반복되면서 양심의 기능이 약화된다. Moore 등(2006)이 지적하듯, 윤리적 실패는 의도적 범죄의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유혹과 자기기만의 누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Coram Meo*는 회계윤리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궁극적 기준은 아니며, 양심 자체도 더 높은 기준에 의해 교정될 필요가 있다(Calvin, 김종흡 외 공역, 2006).

3. *Coram Mundo*의 가능성과 한계

회계투명성의 두 번째 차원은 사회적 책임성이다. *Coram Mundo*는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현대 회계학의 많은 책임성 이론은 이 차원에 속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ESG와 이해관계자 이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외부감사는 공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명한 회계정보는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Bushman & Smith, 2001; Healy & Palepu, 2001). 이 점에서 *Coram Mundo*는 회계투명성의 사회적 차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Coram Mundo*는 개인의 윤리적 책임성을 조직적·제도적 책임성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의 선한 의도와 양심만으로 복잡한 현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업무분장, 승인절차, 내부통제, 독립적 감사, 감사위원회의 감독, 내부고발제

도 및 정보공시는 개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개인을 불신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과 도덕적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공동체의 책임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oram Mundo*는 단순히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차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정의, 진실성, 책임성이 조직과 사회의 제도 속에서 구체화되는 공적 책임성의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Coram Mundo* 역시 궁극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은 상당 부분 외부 감시와 제도적 통제에 의존한다. 감시가 약화되거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책임성도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자체가 단기 성과, 주가 상승, 경쟁 압력에 지나치게 지배될 경우 사회적 기준 역시 왜곡될 수 있다(Messner, 2009). 시장 전체가 단기 실적을 요구할 때 경영자는 실적 조작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수익만을 요구할 때 회계정보는 왜곡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Coram Mundo*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4. *Coram Deo*와 궁극적 책임성

*Coram Deo*는 *Coram Meo*와 *Coram Mundo*를 초월하면서도 이 둘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책임성의 차원을 제공한다. *Coram Deo*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행동은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삼상 16:7). 인간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 관점은 회계투명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회계인은 투자자나 감독기관 앞에서만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진실성은 단순한 법적 의무나 직업적 규범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책임이 된다.

히브리서 4장 13절(ESV)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여기서 "give account"라는 표현은 회계학의 accountability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회계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활동이라면, 성경은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보고되고 평가되는 과정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회계(accountability before God)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성경적 청지기직(Stewardship)과 회계인의 소명

*Coram Deo*의 관점에서 회계인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보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고하는 청지기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였으며(창 1:28),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고 말한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faithfulness)이다.

청지기 이론은 조직의 장기적 발전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관리자의 가능성을 강조한다(Davis et al., 1997). 그러나 성경적 청지기직은 조직이론의 청지기 이론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과 목적을 가진다. 조직이론의 청지기 이론이 경영자의 동기와 조직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면, 성경적 청지기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인간에게 맡겨진 자원과 역할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이다. 따라서 두 개념의 관계는 이론적 동일성이나 직접적인 계보의 관계라기보다 '유비적 관계(analogical relationship)' 또는 '학제적 대화(interdisciplinary dialogue)'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직이론의 청지기 이론이 자기이익을 넘어 조직의 공동목표에 헌신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설명한다면, 성경적 청지기직은 그러한 책임성과 충실성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규범적 근거를 갖는지를 설명한다. 성경적 청지기는 단순히 조직이나 주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Calvin, 김종흡 외 공역, 2006). 따라서 회계인은 숫자를 창조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경제적 실체를 충실하게 보고하는 사람이다. 회계인은 기업정보의 청지기이며, 감사인은 공공신뢰의 청지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인의 직업은 단순한 전문직(profession)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는 소명(vocation)이다. 회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해될 때, 회계투명성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신실함의 표현이 된다.

6. *Coram Deo*와 회계투명성의 통합

*Coram Deo*는 *Coram Meo*와 *Coram Mundo*를 부정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궁극적 방향과 의미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세 차원은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책임성 구조를 형성한다. *Coram Deo*는 회계투명성의 궁극적·존재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Coram Meo*는 그 책임성을 개인의 양심과 전문직 윤리로 내면화하며, *Coram Mundo*는 이를 조직과 공동체의 규범 및 제도로 구체화한다. 특히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Coram Deo*의 책임성이 개인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권한의 분산, 내부통제, 독립적 감사, 이사회의

감독 및 투명한 공시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인간의 오류와 자기이익 추구를 견제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도는 *Coram Deo*의 대안이 아니라 *Coram Deo*가 요구하는 책임성을 현실의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회계투명성은 '신앙인가 제도인가'라는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 개인의 양심과 전문직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제도적 책임성이 함께 작동할 때 회계투명성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Coram Deo*는 제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떠한 가치와 방향에 따라 설계·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궁극적 규범적 토대이다.

V. 회계부정 사례에 대한 *Coram Deo* 관점의 분석

1. 회계부정에 대한 *Coram Deo* 관점의 신학적 해석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오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재무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IESBA, 2024). IESBA(2024)의 「Occupational Fraud 2024: A Report to the Nations」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부정(자산유용, 부패와 재무제표 부정 포함)으로 인해 잃는 것으로 추정되며, 138개 국가에서 조사된 1,921건의 실제 사례는 부정이 특정 국가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회계학은 회계부정을 내부통제 실패,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정보비대칭,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회계부정의 제도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Coram Deo*의 관점에서 회계부정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법규 위반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 책임성 상실로 이해될 수 있다(Calvin, 김종흡 외 공역, 2006).

성경은 죄를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로 이해한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죄의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회계부정 역시 투자자, 채권자, 정부, 시장에 대한 위반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 상실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회계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궁극적 책임성이 약화된 상태를 반영하는 윤리적·영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별 회계부정 행위자의 실제 신앙이나 동기를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계부정이라는 행위의 윤리적 성격을 *Coram Deo*의 규범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2. 성경적 사례: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성경은 회계부정과 유사한 책임성 실패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에서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 일부를 숨겼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알고 계셨다. 아간의 문제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을 상실한 사건이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행 5:1-11). 그들은 토지 매각 대금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보고의 진실성이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행 5:4)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두 사건은 *Coram Deo*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회계적 관점에서 보아도 핵심은 기록된 숫자의 외형이 아니라 보고자의 진실성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이 상실될 때, 보고는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3. Wirecard 사례: *Coram Mundo*의 한계

Wirecard 사건은 현대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례이다. Wirecard는 독일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한때 독일 DAX 지수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약 19억 유로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회사는 파산하였다(KPMG, 2020).

이 사건은 *Coram Mundo*, 곧 사회적 책임성과 외부 감시의 한계를 보여준다. Wirecard에는 외부감사인, 감독기관, 투자자, 언론의 감시가 모두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장기간 회계조작이 지속되었다. 이는 외부감사, 감독, 언론 보도, 시장 감시와 같은 사회적 통제 장치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회계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Coram Mundo*는 회계투명성의 필수적 차원이다.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며, 기업은 사회 앞에서 설명책임을 진다. 그러나 책임성이 외부의 시선에만 의존할 경우, 인간은 감시의 사각지대를 찾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Wirecard 사례는 외부감사와 감독 등 사회적 통제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계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Coram Deo*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외부 감시를 넘어서는 궁극적 책임성에 대한 규범적·신학적 논의가 회계윤리를 이해하는 데 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음을 제안한다(Bushman & Smith, 2001 ; Healy & Palepu, 2001).

4. Luckin Coffee 사례: *Coram Meo*의 한계

Luckin Coffee는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하며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렸으나, 2020년 약 22억 위안 규모의 허위 매출이 밝혀지면서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되었다(SEC, 2020). 이 사건은 *Coram Meo*, 곧 개인의 양심과 자기책임성의 한계를 보여준다.

허위 매출은 단순한 계산 실수나 회계기준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조직 내부의 여러 구성원이 허위 매출의 작성과 보고 과정에 참여한 조직적 왜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Coram Meo*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양심과 전문직 윤리의 책임성이 약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회계정보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실적 압박이 크다", "이번 분기만 넘기면 된다", "주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 "회사를 위한 일이다"와 같은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은 Moore 등(2006)이 설명한 도덕적 유혹(moral seduction)과 자기합리화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양심은 회계윤리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외부 기준과 더 높은 책임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쉽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Luckin Coffee 사례는 *Coram Meo* 만으로는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5. 오스템임플란트 사례: *Coram Meo*와 *Coram Mundo*의 동시 실패

국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회계정보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다(금융감독원, 2022).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그것은 개인의 윤리적 실패와 조직 내 책임성 체계의 실패가 결합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에는 재무보고 절차, 내부통제, 외부감사 등 형식적 제도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조직 내 감시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이는 개인의 양심이 마비될 때 *Coram Meo*가 실패하고, 조직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Coram Mundo* 역시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 사례는 회계투명성이 개인의 윤리성 또는 제도적 통제 중 어느 하나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양심과 제도는 모두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책임성의 토대가 요구된다.

6. *Coram Deo* 관점에서 본 회계부정의 규범적·신학적 해석

이상의 사례들은 회계부정의 원인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제도적 미비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 관련자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기이익, 성과 압박, 조직의 기대, 시장의 평가를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Sen, 1977). 이상의 사례들은 회계부정을 기술적 오류나 제도적 미비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해석할 경우, 회계부정은 제도적 실패와 함께 자기이익, 자기합리화, 왜곡된 욕망 및 책임성의 약화라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Coram Meo*가 약화될 때 양심은 자기합리화에 의해 왜곡된다. *Coram Mundo*가 약화될 때 외부 감시와 제도적 통제는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Coram Deo*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Coram Deo*의 관점은 회계부정을 단순한 규정 위반이나 제도적 실패를 넘어 궁극적 책임성과 진실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제공한다. 이때 회계정보는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과를 조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Messner,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회계부정 사례들이 *Coram Deo*의 상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경험적 인과관계를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윤리의 약화와 제도적 책임성의 실패를 *Coram Deo*라는 신학적·규범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회계투명성의 문제를 인간의 궁극적 책임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VII. 결론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의 궁극적 기초를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개념인 *Coram Deo*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현대 회계학은 오랫동안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외부감사(external audit),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공시제도(disclosur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Bushman & Smith, 2003 ; Healy & Palepu, 2001 ; Jensen & Meckling, 1976). 이러한 제도들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Wirecard, Luckin Coffee, 오스템임플란트 등 최근의 회계부정 사례는 제도와 규정만으로는 회계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단순한 회계기준이나 통제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인간 존재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의 근본적 토대를 존재론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교개혁 전통의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 개념을 회계윤리와 책임성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Coram Meo*는 개인의 양심과 자기성찰에 기초한 내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Coram Mundo*는 공동체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자기합리화와 죄의 영향으로 쉽게 왜곡될 수 있고(Moore et al., 2006), 사회적 책임 역시 외부 감시와 제도적 통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회계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Messner, 2009).

이에 비해 *Coram Deo*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책임성을 제공한다. 인간은 자신의 양심 앞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사회 앞에서만 책임을 지는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모든 행위와 동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Coram Deo*는 *Coram Meo*와 *Coram Mundo*를 가능하게 하고 통합하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oram Deo*는 양심을 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Wirecard, Luckin Coffee, 오스템임플란트 사례를 *Coram Deo*의 관점에서 규범적·신학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이들 사건을 내부통제 실패,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정보비대칭,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으로 설명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경제적 설명을 부정하거나 대체하기보다 회계부정을 인간의 진실성과 궁극적 책임성이라는 윤리적·신학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분석은 해당 기업 관계자들의 신앙, 내적 동기 또는 *Coram Deo* 의식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계부정의 경험적 원인이 *Coram Deo*의 상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회계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궁극적 책임성이 훼손된 상태로 규범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Coram Deo*는 이러한 회계윤리의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존재론적·신학적 틀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회계부정은 회계기준을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기이익과 조직의 성과를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Sen, 1977). 이러한 점에서 회계부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적·윤리적 문제이며, 회계투명성 역시 존재론적 책임성의 회복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theoretical contribution)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투명성을 제도적, 기술적 문제로 이해하는 기존 접근을 넘어 존재론적,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둘째,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의 관계를 통하여 회계윤리와 책임성의 다층적 구조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회계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오늘날 회계교육은 회계기준, 감사절차,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전문적·제도적 지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회계전문가에게 필수적이지만, 회계투명성은 기술적 지식만으로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 회계사는 전문지식과 함께 정직성(integrity), 충실성(faithfulness),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갖춘 윤리적 행위자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 대학의 회계교육은 학생들이 회계를 단순한 직업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는 소명(vocation)과 청지기적 책임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Coram Deo* 교육이 단순히 신앙적 가치나 정직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Coram Deo*의 책임성이 실제 회계판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윤리적 의사결정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량적 발생액 조정, 충당부채 추정, 수익인식 시점, 자산손상, 내부통제 우회 등 현실적인 회계윤리 사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가?"라는 질문뿐 아니라 "이 판단은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하는가?", "이해관계자에게 정직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판단인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회계부정이 작은 자기합리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윤리적 합리화(ethical rationalization)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이번 분기만 조정하면 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다른 기업도 모두 그렇게 한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다"와 같은 현실적인 합리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Coram Meo*의 양심, *Coram Mundo*의 이해관계자 책임, *Coram Deo*의 궁극적 책임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사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Coram Deo*를 추상적인 신학 개념에서 구체적인 전문직 판단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Coram Deo*의 책임성은 개인의 선한 의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지원하는 조직적·제도적 장치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직은 회계처리나 재무보고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내부보고 및 제보(whistleblowing) 채널을 마련하고, 문제를 제기한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경영자의 보상체계가 단기적인 매출, 영업이익 또는 주가에 지나치게 연동될 경우 회계정보를 왜곡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무성과뿐 아니라 내부통제의 충실성, 윤리적 행동 및 장기적 책임성을 함께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고경영자와 이사회는 윤리적 리더십의 모범(tone at the top)을 보여야 한다. 경영진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작은 회계왜곡이나 내부통제의 예외를 묵인한다면 공식적인 윤리규정이나 내부통제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진은 성과보다 진실한 보고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실제 의사결정에서도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내부통제와 윤리교육을 별개의 영역으로 운영하기보다 상호 결합할 필요가 있

다. 내부통제가 '무엇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면, 윤리 및 덕 교육은 '왜 그 통제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Coram Deo*는 내부통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규범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주로 신학적, 규범적 접근을 사용하였으며, *Coram Deo* 의식과 회계윤리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계부정 사례는 *Coram Deo* 상실과 회계부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례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적·윤리적 설명을 *Coram Deo*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Coram Deo* 의식이 회계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거나, 기독교 기업과 일반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인공지능 기반 회계환경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Coram Deo*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을 개인의 윤리성과 제도적 통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취약성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내부통제, 외부감사,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제도가 어떠한 목적과 가치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규범적 토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토대를 *Coram Deo*에서 찾는다.

따라서 *Coram Deo*는 제도적 책임성을 대체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존재론적·규범적 기초이다. *Coram Deo*에 기초한 책임성은 *Coram Meo*의 차원에서 개인의 양심, 정직성 및 전문직 윤리로 내면화되고, *Coram Mundo*의 차원에서는 내부통제, 감사,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으로 제도화된다. 동시에 건전한 제도는 죄성을 가진 개인의 한계를 견제하고 윤리적 행동을 지원함으로써 *Coram Deo*의 책임성이 현실의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되도록 돕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2022).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관련 검사 결과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김정재 (2015). **재무회계이론**. 신영사.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역 (2006). **기독교 강요**. Calvin, J.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생명의말씀사.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박태현 역 (2011). **개혁교의학 1: 서론**. Barvinc (1885). *Gereformeerde Dogmatiek*. 부흥과개혁사.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evereiniteit in eigen kring*. 도서출판 다함

박형용 (2021). 하나님의 사람, 정암 박윤선을 만나다. **신학정론**, 39(2), 11-45.

신영순·이민경·이현민 역 (2014). **샬롬을 위한 교육: 교육의 성경적 비전과 학문의 사회적 실천**. Woltersto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SFC출판부

이상웅 (2015). 최홍석교수의 삶과 신학세계. **신학지남,** 82(3), 85-135.

이종숙 (2019). 기독교상담을 위한 슈퍼비전의 코람데오 자세. **목회와상담,** 32, 203-228.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2024). *Occupational fraud 2024: A report to the nations*. ACFE.

Akerlof, G. A.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488–500.

Axtell, J., Smith, L. M. & Tervo, W. (2017). The advent of accounting in business governance: From ancient scribes to modern practitio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Governance and Ethics*, 12(1), 21-46.

Bushman, R. M. & Smith, A. J. (2001).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2(1–3), 237–333.

Bushman, R. M. & Smith, A. J. (2003). Transparency,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Economic Policy Review*, 9(1), 65–87.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2013).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COSO.

Davis, J. H., Schoorman, F. D. & Donaldson, L. (1997). Toward a Stewardship Theory of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1), 20–47.

Ebeling, G. (1970).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Trans. by Robert A. Wilson. Fortres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English Standard Version Bible. (2016).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rossway.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18).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IFRS Foundation.

Freeman, R. E.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Pitman.

Healy, P. M. & Palepu, K. G. (2001).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disclosure, and the capital marke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3), 405-440.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2024). 2024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Jensen, M. C. &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305-360.

KPMG. (2020). *Report to Wirecard AG Supervisory Board regarding the special audit.* KPMG AG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Lee, Seung-Goo. (2015). Coram Deo as a central concept in Calvin's theology. *Hapshin Theological Review,* 4, 77-112.

Mahafaly, B. L. (2016). *Coram Deo et Coram Mundo: The two kinds of righteousness as a normative framework for the description, interpretation, and healing of shame*. Doctoral dissertation, Luther Seminary.

Messner, M. (2009). The limits of accountability.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34(8), 918-938.

Moore, D. A., Tetlock, P. E., Tanlu, L. & Bazerman, M. H. (2006).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case of auditor independ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10-29.

Roberts, J. & Scapens, R. (1985). Accounting systems and systems of accountability—understanding accounting practices in their organisational context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0(4), 443-456.

Sen, A. (1977). Rational fools: A critique of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economic theory. *Philosophy & Public Affairs*, 6(4), 317-344.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0, December 16). Luckin Coffee agrees to pay $180 million penalty to settle accounting fraud charges.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회계 투명성의 신학적 기초: *Coram Deo*를 중심으로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A *Coram Deo* Perspective

장 근 배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 회계학의 제도적·경제적 접근을 보완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개념인 *Coram Deo*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신학적·존재론적 기초를 탐구한다. 기존 회계학은 정보비대칭, 대리인 문제, 기업지배구조, 외부감사 및 내부통제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설명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인간이 왜 궁극적으로 정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존재론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를 회계책임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Coram Deo*는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존재론적 책임성을, Coram Meo는 개인의 양심과 전문직 윤리에 기초한 내면적 책임성을, *Coram Mundo*는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책임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Coram Deo*의 신학적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세 차원을 '궁극적 토대-내면화-제도화'의 상호보완적 구조로 이해한다. 특히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 외부감사 및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Coram Deo*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성을 현실의 조직에서 구현하고 지원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또한 Wirecard, Luckin Coffee 및 오스템임플란트 사례를 통해 개인적 윤리와 제도적 책임성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Coram Deo*의 관점에서 규범적·신학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는 회계부정의 경험적 원인을 *Coram Deo*의 상실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정을 인간의 진실성과 궁극적 책임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Coram Deo*가 제도적 통제를 대체하는 원리가 아니라 회계인의 정직성과 전문직 윤리, 내부통제, 감사 및 기업지배구조에 궁극적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규범적 토대임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적 회계책임성 이론의 발전과 함께 회계윤리교육 및 조직의 책임성 강화에도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회계투명성, *Coram Deo, Coram Meo, Coram Mundo*, 책임성, 회계윤리